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있는
돌보를 들여다보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알고 그
길에 매료된 자로 모이는
교회공동체입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고자 나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에게 일생이 있게 하시니

신 윤 식

나에게 일생이 있게 하시니

그 일생이 여행이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일생이 음악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는 것일까

그 일생이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일까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이제 다시 불러본다.
그 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이제 다시 생각한다.
그 분이 나에게 뜻을 두신 것처럼

끝없이 내리는
저 눈의 조용한 이야기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3.27

발행호수 제19권 13호

예 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따르던 무리들이 겔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으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고백하면서 ‘호산나’ 라고 높이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은 전혀 틀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과 찬송은 자기중심적인 이해에 의한 인간의 지식이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맞았지만, 무리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로만 이해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를 기다렸던 인간이 뜻이 서로 어긋났기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았지만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 오셨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에 갇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을 위한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죄입니다. 피조물다움은 팽개쳐 버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현대 교회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 자신들에게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만을 바라보려는 어리석음에 가려서 그러한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며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주일오전설교
마 21:12-17

성전과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라면 경건한 분위기에야 마땅한데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고 비둘기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의 예배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어도 어디에든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사회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곳에 회당이라는 것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안식일이면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들으며 나뭇대로의 종교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행해지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가장 중요한 종교행위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고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로 나아감으로써 죄가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가 오직 성전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 년에 한 차례 이상은 팔히 성전에 와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빠진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기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경제력에 따라 소, 양, 비둘기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소나 양을 먼 곳에서부터 끌고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끌고 온다고 해도 그 소나 양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제물로 쓰기에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제물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환전상입니다.

제물을 매매하고 환전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겼을

거라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없으면 안되는 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폭리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전하는 것도 예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장사꾼과 환전상을 모두 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장사꾼과 환전상이 없으면 제물을 구하기 어렵고 성전세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성전에서 그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지 제물을 팔고 사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이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이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먼저 성전에 장사꾼과 환전상이 있었다는 것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의 목인이 있지 않고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묵인했다는 것은 결국 뇌물이 오고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이 성전에서의 매매를 허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묵인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 일까요? 물론 그것도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제물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것들이 단지 장사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적 의미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장사꾼의 집’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말이 제물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두고

한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만약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이윤을 남기는 매매였다면 용납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은 사 56: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말씀하신 것은 기도는 성전에 나와서만 할 수 있고,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왕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 중에 30절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도의 의미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성전을 향하여 한다는 것은 성전의 본질이 곧 죄의 용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자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에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종교인의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들, 그들에게 제물을 팔고 환전을 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것을 묵인해 주면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들로만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상하게 여겼고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소리 지르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왕,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리 지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너를 하나님이 보내신 왕, 메시아라

고 소리치는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 라고 분노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노에 대해 예수님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실 분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찬미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찬미를 온전케 하실 성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분노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 하나는 자신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위치와 권세, 그리고 이득들을 계속 누려 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불쌍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 오직 눈앞의 이득과 제사장, 서기관이라는 유대 사회에서 높임 받는 자신의 자리에만 연연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로만 일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불쌍함과 자신의 죄인 됨을 보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 집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높아짐과 자신의 이득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에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설령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참된 성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인간의, 나 자신의 불쌍함을 깨닫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봉사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직분의 의미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의 참된 봉사는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봉사와 헌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불쌍함에 대해 보지를 못한다면 이러한 봉사와 헌신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신앙생활을 더 힘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경험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과 황홀함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과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마음은 늘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 성령을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전히 세상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다만 구별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동일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고 덜 채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지 조금 부족하게 받은 미완성의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힘이 있거나 열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

주일오후학교

엡 5:18

성령 충만

(성령 10장 3.6일 설교)

한 대로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이해하고 있고, 성령으로 가득하다면 그에 따른 외적인 증거가 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에 따른 표적과 기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주로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밋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도무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는 말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술 취한 것과 대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술 취한 것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가 술 취함을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를 알게 되면 자연히 성령 충만에 대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는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술 취한 것을 가지고 방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한국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면 신자가 술 취한 것이 방탕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신앙과 연결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가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되 술에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도의 의도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말일 뿐입니다.

지금 사도는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신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술 마시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사도 당시의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술 취한 것을 방탕한 것으로 말하지만 사실 술 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 이유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 보면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하지

않았을 때는 방탕한 것이 아닌데 취하면 방탕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도는 성령 충만을 술에 취해 사는 것과 대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누군가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누구의 말을 듣지도 않고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이것을 사도는 방탕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길을 떠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간섭과 다스림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방탕이었습니다. 즉 방탕의 중심에는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다만 자신을 위해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는 술 취한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윤곽이 조금은 잡힐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비하여 이해하게 되면 성령 충만은 신자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장악하신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시고 그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신자의 속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높이며 자랑하는 길로 나아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달으며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 모든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인간이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지혜가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죄인 됨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의 피로 인한 용서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십자가에 마음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신자에게서는 자신의 실천으로 믿음을 있는 자가 되고,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마땅한 것은 죄인으로서는 저주의 자리일 뿐임을 알고,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로써 그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자의 절실한 깨달음에 의한 자연적인 것입니다.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신자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자의 의지와 노력은 자연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신자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본분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 가라 선지자가 네 번째로 환상을 보니다. 환상의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제사장 옆에 사탄이 서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대적을 한다면 신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스가라가 환상을 통해서 본 사탄의 대적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

을 듣는 이유는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여호와와는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말씀하시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는 온통 새키깁니다. 어느 한군데도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였고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했고, 그것을 여호와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더럽기 짝이 없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대적을 책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사탄의 대적이 무엇인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가 부정하고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정하고 악한 자로 서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탄이 했을 법한 것은 정죄입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움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대적이라면 그와 같은 대적이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됨이 있으면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온 사람들은 여인을 비난하며 율법대로 처리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죄 지은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그를 치라'는 것으로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타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다르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적한 사탄이 책망을 받았다면, 사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 책망을 받을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대적은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고 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즉 예루살렘을 대표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깨끗하고 정결하기 때

수요일설교
숙 3:1-10

환상
(죄악을 제거)
(4장 3.9일 설교)

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더러웠습니다. 여호와와 그런 그들을 택해서 정결한 자가 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4,5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받을 은총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자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즉 모든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실상입니다. 죄 없는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모습만 보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한 것은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정결의 관을 씌우신 은총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개인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에게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단지 도덕적인 문제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의 대적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한다면 우린 그 동안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비난 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위에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택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에서 더러움은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해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바라볼 때 누군가가 신자가 아닌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기준이고 여러분의 시각일 뿐입니다. 애당초 하나

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깨끗함이나 정결함과 상관없이 존재인입니다. 따라서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더러움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나는 깨끗하다’ 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무시하는 대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비난과 정죄만 알았을 뿐,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택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느냐 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한 심판과 정죄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긍휼과 자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방식에 의해서 의로운 자로 여김 받고 생명에 속하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난과 정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썩을 나게 하리라” 고 말합니다.

예표의 사람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뭔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차 있을 일은 하나님이 나게 하실 썩입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실 썩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자신의 더러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움을 벗겨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세계에 비난이나 정죄는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더러운 자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권사 취임식 및 퇴임식)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계
 신앙고백 : 다 함 계
 찬 송 : 83장
 교 독 : 108(임직식)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59장
 성 경 : 마 21:12-17
 말 씀 : 성전과 예수님(13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6장
 서 약 : 취임권사, 은석교인
 공 포 : 담임목사
 권면(권사): 이성희 장로
 (교인): 조규현 장로
 취임패 및 감사패 증정 : 담임목사
 축 가 : 가족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찬 송 : 433장, 502장, 265장
 기 도 : 박상윤 집사
 성 경 : 1요 2:27-29
 말 씀 : 성령과 교회(성령 12강)

■ 수요일예배 ■

스가랴 강해(7강)

■ 교회소식 ■

1. 은석교회 권사로 수고하시다가 퇴임하신 박 위선 권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취임하신 한옥섭 권사님께 지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등록하셨습니다 - 이화영
 (북구 읍내동 1359-8 ☎ 324-3684)



다음주 기도

오전 이영민 장로 오후 이옥주 집사

자연과 인간②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을 자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로 본다는 것은 단순히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믿으라고만 한다면 필히 '왜' 라는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홍수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사건을 두고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왜' 라는 물음에 대해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라는 물음에 대해 그야말로 앞뒤 분간도 없고 성경적인 안목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한다. 하지만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는 아닐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해서 모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무사할 것이라는 보증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말은 스스로의 무식을 폭로하는 그야말로 자백(한자 스스로 자와 강렬한 자극으로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의미의 속어인 백이 합성된 신조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정신을 못차린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드러내고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이 뜻과 무관하지 않다. 즉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단지 인간에게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언약을 배경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물어야 하는 것은 '왜 창조 되었는가?' 이다. 이 물음이 있어야 현재의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맞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채, 현재 자신이 생존한다는 것만 생각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면 인간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뜻을 배경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의 뜻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에만 민감하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은 자기 존재, 즉 생존을 위한 것으로 연결된다. 오로지 생존을 위해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성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적인 자세로만 일관한다.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온다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하는 것이 곧 자연에 대한 승리로 여기는 것이다.

물론 재해에 대해 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고, 자연으로 인한 재해 또한 우연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임을 알자는 것이다.